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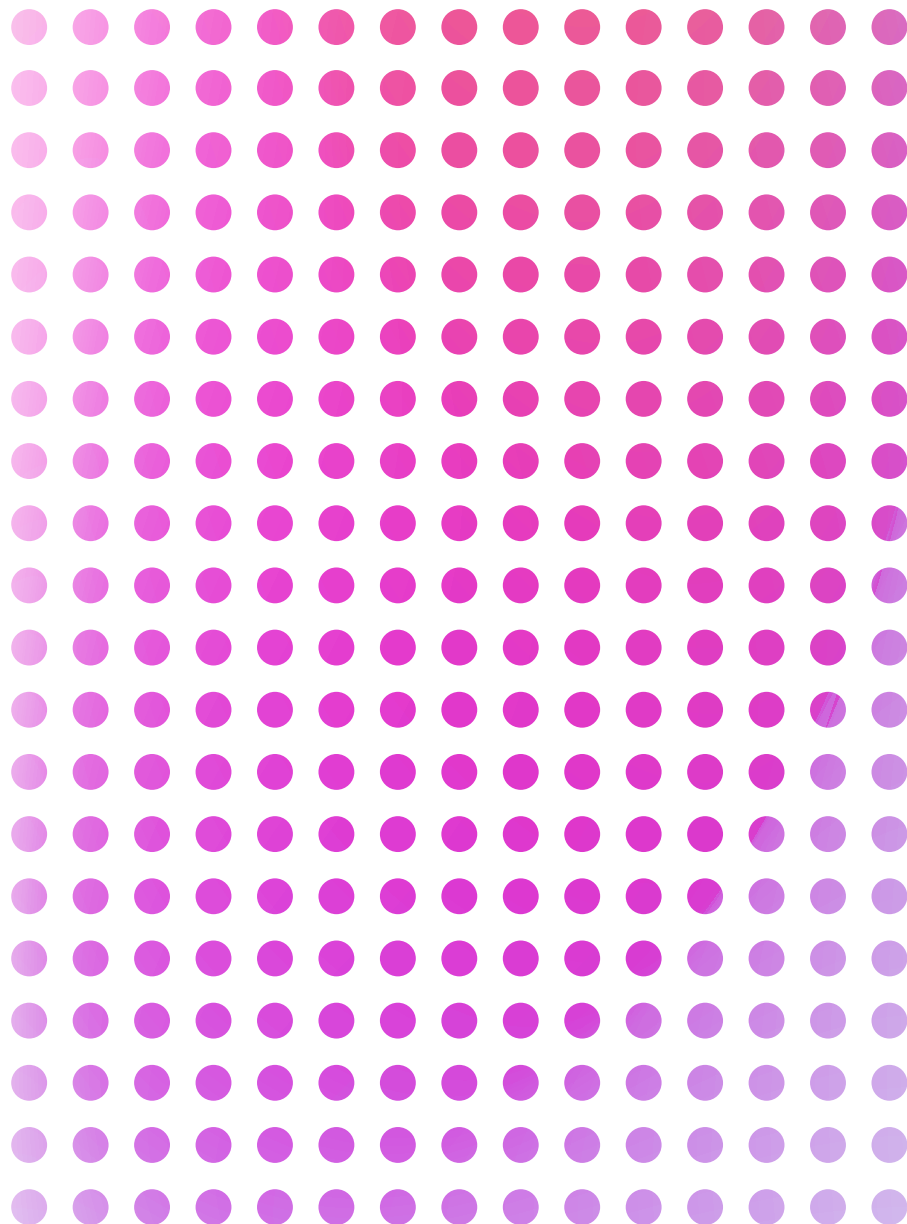
성인지 감수성 ON & UP

성인지 감수성 향상 가이드

성인지 감수성 ON&UP

성인지 감수성 향상 가이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디지털 시대,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이유!

1

성인지적 콘텐츠 소비·생산 책임 증가

디지털 공간의 확장(SNS, 커뮤니티, 메타버스 등)에 따라 콘텐츠는 빠르게 확산되며, 개인의 인식과 사회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소비자, 생산자의 비판적 시각과 윤리의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2

성인지적 언어 사용 중요성 증가

소통 방식과 학습 구조 변화(비대면 회의, 온라인 수업 등)에 따라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문자·음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언어는 나의 태도와 가치관을 드러내고, 소통 환경과 분위기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습니다.

3

성인지적 대응(법, 교육, 정책, 서비스) 중요성 증가

딥페이크 성범죄 등 기술 악용 신종 성범죄는 신기술과 성차별적 인식이 결합된 범죄입니다. 기존 법, 제도만으로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구조적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4

성인지적 경쟁력 중요성 증가

디지털 협업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확대되는 오늘날, 브랜드의 성인지적 경쟁력은 사회적 감수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인지 역량 향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장가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인지 감수성 알아 볼까요?



여기서 잠깐!
'젠더(Gender)'란?

"사회적 성(性)",
남자답게·여자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식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대와 규칙.
누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지 등 사회적
권력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

성인지 감수성은?
Gender
Sensitivity

· 감수성 = 단순히 F(감정)의 문제가 아닌 T(사고)와 F(감정)의 총합!

일상 속 성차별적 편견을 성찰하는 태도



권력 구조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거나, 외면되는 현실을 인식하는 능력



사회 곳곳에 있는 성차별 문제를 더 현실적으로 넓게 살펴보고,
이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적극적인 실천으로 연결하는 것

* 김수아(2024). "조직 내 성평등 문화 만들려면 차별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신문과방송 9월호),
최이숙(2024). "젠더 감수성 제고 노력 없이 더 나은 저널리즘은 없다"(신문과방송 8월호) 참조

성인지 감수성 점검해 볼까요?

개인 차원

언어	행동
생각 · 태도 반영	내면의 가치 실천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농담을 하나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나요?

조직 차원

조직문화	거버넌스
기후·분위기(무형감각)	문화를 뒷받침하는 제도
어떤 관점, 태도, 특성이 괜찮다고 여겨지나요?	누가 결정권을 갖고, 누가 어떤 권한을 누릴 수 있나요?

나는 일상 속 타인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내가 속한 조직은 구성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나요?

성인지 감수성과 일상생활

나도 모르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언행을 하고 있진 않나요?

미세차별,
마이크로어그레션
Micro-
aggressions

“ 사모님,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

여성을 남편의 아내이자,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종속된 존재로 규정

“ 아빠(엄마)가 있어야 애가 제대로 크죠 ”

한부모가족 등 아빠-엄마-아이로 구성되지 않은 가족을 배제

“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사람이 철들죠 ”

1인 가구 등 가족의 형태를 다르게 선택한 상대를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

성인지 감수성 점검 체크리스트



영역	점검문항	동의	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1. '여자치고는', '남자라서' 등 성별에 따라 구별하는 말은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	☐	☐
	2. 섬세하고 꼼꼼한 일은 여성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다	☐	☐
	3.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4. 여성은 나이가 어리고 예쁠 때 결혼하는 것이 좋다	☐	☐
	5. 연애를 하려면 남성은 능력, 여성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	☐
	6. 외모 칭찬("예쁘다", "몸매 좋다")를 불쾌하게 들을 사람은 없다	☐	☐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7.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거절해도 계속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	☐
	8.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의 옷차림, 귀가시간, 대인관계를 내 생각대로 따르게 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애정 표현이다	☐	☐
	9. 다른 부부나 커플 사이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므로 말리거나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	☐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10. 가족의 생계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책임져야 한다	☐	☐
	11. 1인가구는 청년층의 연령대로만 구성되어 있다	☐	☐
	12. 가족구성원은 많을수록 행복하고, 적으면 외롭고 온전하지 못하다	☐	☐
성별 대표성 불균형	13. 여성은 남성만큼 팀원을 통솔하지 못한다	☐	☐
	14. 성별에 따라 원하는 직업이 대체로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	☐
	15. 자격이 같은 남녀직원 중 한 명만 승진할 수 있다면 남자를 승진시켜야 한다	☐	☐



전반적인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 ('동의' 개수)

많이 부족	약간 부족	보통	양호	우수
동의 12개 이상	동의 8~11개	동의 5~7개	동의 2~4개	동의 1개 이하
무심코 했던 언행을 돌아보고, 관련된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여 의식을 높여 보아요!		더 많은 사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숨어 있는 미세차별을 발견해 보아요!	현재의 태도로 주변에도 도움을 주어요!

*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성인지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청(2024). <성인지 감수성 진단검사>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22).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울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4).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 점검 문항 참조 및 재구성

3.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체크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좋아해서 한 행동은 폭력이 아니라는 생각



“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물리적·심리적 폭력으로 상대를 통제하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

※ 서울시·아하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보도자료(2025.05.23.). ‘소년의 시간’은 현실이다. 아하센터로 몰리는 가해자 청소년들, 장혜지(2025.06.10.). “프랑스,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 교재로 활용: 영국·네덜란드에서도 활용”. 한겨레

❌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조종하려는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 타인 조망 능력*의 부족, 자기중심적 사고에 기초해 생기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다

* 타인 조망 능력: 타인의 생각, 감정, 상황 등을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4.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체크

부모+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만이 아동·청소년을 위한 건강가정일 거란 생각



“ 전통 가족에 대한 환상, 성역할 구분 (“엄마라면~”, “아빠라면~”)을 강화하고 돌봄 부담을 가족 내부로 한정 시키지는 않나요? ”

※ 가노 쓰치, 박소정 역(2022). <침묵 가족: 비혼 싱글맘의 공동육아기>. 서울: 정은문고, CBS-한국언론진흥재단(2025). 낯선 사람들과 함께 아들을 키운 엄마의 육아노트 [CBS청사특집: 미래와의 협상 EP.4]. 노컷 유튜브 채널

❌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될 때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다

⊙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만이 건강하다는 폐쇄적인 가치관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배제할 뿐 아니라, 돌봄 등의 문제를 개별 가족의 책임으로 한정 지어 가족을 고립시킬 수 있다

5. 성별 대표성 불균형 체크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업무 배치가 효율적이라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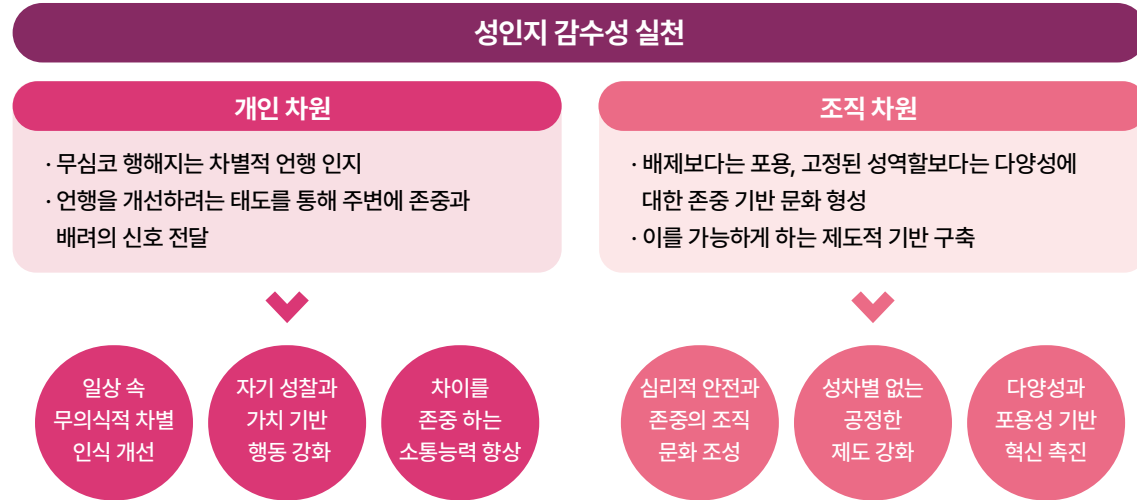


“ 여성은 ‘여성다운’ 업무?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업무 배치부터 핵심 업무에서 배제하는 유리천장의 출발점 아닐까요? ”

※ YTN(2024.01.23.). 여성만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제시는 승진 차별. YTN 유튜브 채널, 송주용(2025.03.0

성인지 감수성 어떻게 실천할까요?

1. 개인 차원 + 조직 차원



2. 성인지 감수성 실천 약속

- 01 나의 말과 행동이 가진 무게 인식하기**
 - ▶ 무시코 사용하는 단어·농담에 성차별이 담겨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말과 행동을 책임 있게 선택하기
- 02 사람을 성별이 아닌 개인으로 바라보기**
 - ▶ 직장·학교·가정 등 모든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기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독립된 존재로 존중하기
- 03 익숙함에 숨겨진 차별을 감지하기**
 - ▶ 내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차별이나 배제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기
- 04 공정성에 기반한 제도와 운영 고민하기**
 - ▶ 내가 속한 조직의 제도, 규칙에 특정 성별이나 성역할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지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필요성 제기하기
- 05 다양성이 존중 받는 문화 함께 만들기**
 - ▶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와 다른 성별, 정체성, 경험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변화를 촉진하는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 다하기

성인지 감수성 적용사례, 어떻게 있나요?

1. 언론보도 시 성인지 감수성 적용

<젠더보도 가이드라인>

※ 전국언론노동조합 성평등위원회(2023) 참고

기존 표현	교체 표현
외조·내조	배우자·가족의 도움
안사람·바깥사람	배우자
유모차	유아차
맘카페	육아카페
처녀작·처녀비행	첫 작품·첫 비행
몰래카메라·리벤지포르노	불법촬영물

2. 폭력사건 판결 시 성인지 감수성 적용

※ 대법원 2018.10.25.선고 2018도7709 판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인지 감수성 미적용	성인지
-------------	-----

성인지 감수성 ON & UP
성인지 감수성 향상 가이드

재단 임직원 부정청탁 및 비위신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클린신고센터

핫라인 02-810-5401 / 메일 inspect@seoulwomen.or.kr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02-810-5487(5073)

비매출/무료



9 791173 030659

ISBN 979-11-7303-065-9